



워싱턴문인회 월간 소식 2026년 05월

Vol. 1, Issue 24

A Monthly Publication of The Korean Literary Society of Washington



목차 (What's Inside)

5월 워싱턴 문인회 봄 피크닉

♥ 글사랑방 모임 & 문학회 소식 ♥

시 문학회 시

수필 문학회 Essayists

영 문학회 English Writers:

소설 문학회 Novelists:

4

미주 한국일보에 소개된 문인회원의 글
이 달의 추천 도서

워싱턴 문인회 YouTube 채널

회비납부 안내 및 월 재무 보고

2025년 Calendar & Upcoming Events

워싱턴문인회 2025-2026 임원단

7

5월 워싱턴 문인회 봄 피크닉

- 1 2026년 5월 최은숙 회장의 리더십 하에
- 2 워싱턴문인회 임원들과 회원들은 5월 23일 (토)
- 2 워싱턴 문인회 봄 피크닉을 가졌다. Carderock
- 3 Recreation Area Potomac 강가에 위치한
- 4 공원에서 열린 피크닉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 4 속에 진행되었다. 배 숙 부회장의 사회아래
- 4 김인기 시인의 “주소 없는 집” 그리고 임종희
- 5 시인의 “구름과 코끼리” 낭송으로 시작된 모임은
- 6 서로의 삶을 나누고 노래하며, 창작의 기쁨을
- 더해가는 시간을 가졌다.

♡ 글사랑방 모임 & 문학회 소식 ♡

시 문학회 Poets



2026년 5월 ‘글 사랑방’이 지난 5월 19일(화)에 열렸고, 14분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3편의 작품에 관한 합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향이 출간되었으며 6월 20일(토)에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더불어 권귀순 시인님의 에세이집 ‘달의 크레이트를 닦다’의 출판기념회도 함께 열립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제 29회 워싱턴문학의 원고가 마감되었습니다. 총 25명이 참여 하였고 47편의 작품이 제출 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수필 문학회 Essayists

강수영 강사의 <디카 에세이>의 주제로 5월 16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열띤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수영 약력 소개: 뉴욕주립대에서 영문학 박사학위. 알래스카대학에서 문학교육 & 언어교육연구. 2011년 수필등단, 2014년 문학평론등단. <미주시학> 편집장

1) 21세기 스마트 시대의 문학

- 짧은 시간 동안 빠른 기술적 변화에 편리하고 손쉽게 전자책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독서환경의 변화를 가져옴.
- 웹매거진은 웹사이트의 블로그 등의 포스트형식을 사용
- 이런 스마트시대의 창작환경을 고려 --> 독서방식의 변화 & 독서시간의 '짧음'의 미학
- 이미지 중심의 문화를 고려 --> 문자와 함께 이미지를 전송. 글의 잠재성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음

2) 디카 에세이란 무엇인가

- 사진을 담은 글. 디카란 '디지털카메라'의 줄임말. 현재는 스마트폰이 일반 디지털카메라를 기술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차라리 '스마트에세이'라고 해야 할 수도
- 디카시: 20년 전 등장으로 장르가 되었음. 10줄 보다 적은 분량
- 포토에세이: 사진을 보고 쓰는 에세이로 남의 사진을 이용해도 됨
- 디카에세이: 반드시 작가가 찍은 사진으로 글을 쓰되 10문장 분량. 시와 산문을 구별하기 위해 행갈이를 의식적으로 산문형식에 맞춰야 함
- >10줄이 넘으면 '손바닥수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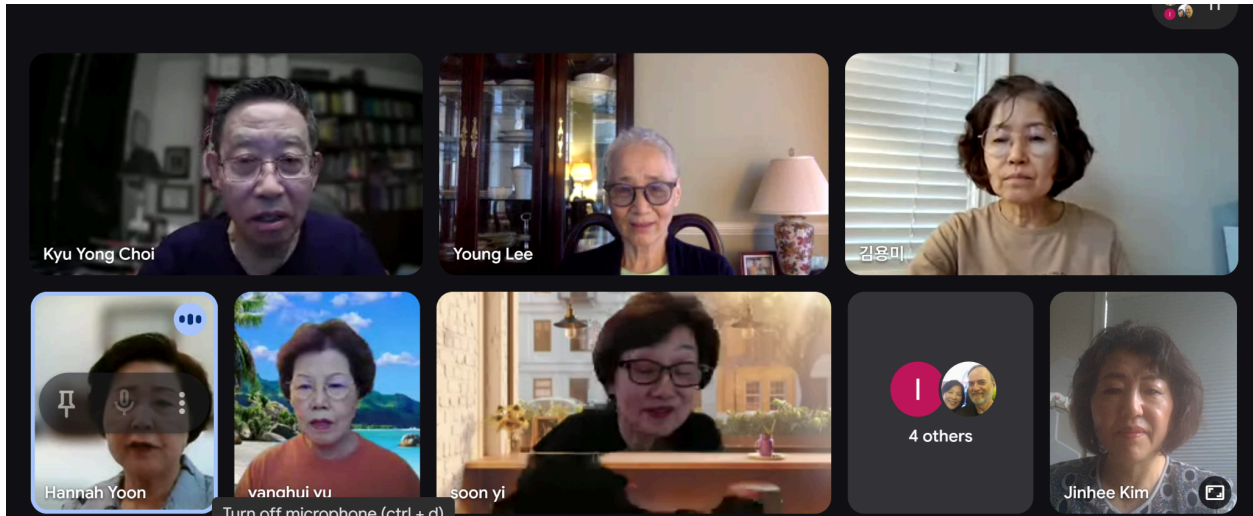
3) 디카 에세이를 어떻게 쓸 것인가

- 디카시와 달리 아직 하나의 장르로 정립되지 않았음
- '6자 이야기' 헤밍웨이의 6자 소설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 이미지를 잘 포착: 순간적 선택의 문제로 독자와 소통
- 해석하는 능력: 사진 '너머'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훈련된 감성, 분석적 능력, 감수성 훈련
- 글을 쓸 능력: 상상력 & 아이디어를 담아내는 글쓰기 기술이 필요
- 압축적인 묘사와 서술: 감각적 언어를 사색적 언어와 조화가 필요
- 감각과 성찰적 사유: 시적 감성을 담아 이미지가 불러내는 감정을 이야기로 담아야 함
- 예) 최장순의 <우산>, 이경은의 <그림자 인생>, 양희 <케냐AA>

4) 맺으며

- '작가의식'을 가져 문학적 변별력과 장르적 감각을 키워 사색 속에서 감성적 순간을 포착하는 훈련이 필요. 예술적 감성훈련을 일상화
- 가장 기본적인 문학적 학습인 묘사와 서술, 비유와 상징, 음악성과 서사적 구조 익히기
-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어떻게 '인간성'을 유지할 것인가
- 문학의 본령은 '인간성'이므로 끊임없는 모색과 학습으로 노력하기를 당부

수필문학회는 5월 16일 저녁 7시에 줌모임으로 총 11분이 참석하여 서로의 글을 합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주요 소식 및 공지

- 5월 9일, <디카 에세이>란 제목으로 작가, 평론가이자 알래스카 대학 교수인 강수영님의 증강의가 있었습니다. 거의 30명의 워싱턴 문인회 회원들이 참석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 5월 16일 중에서 11분이 참석해서 뜨거운 열기의 합평시간이었습니다.
- <워싱턴문학>29호에 실릴 작품이 5월 30일에 16 작가의 26편의 수필로 마감됐습니다.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다음번 미팅은 6월 20일 12시에 문인회 전체 모임에서 함께 합니다. 합평하실 작품과 함께 회원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한국일보 투고: 한 달에 두 번, 합평에서 통과된 글이 한국일보에 실리고 있습니다. 2월에는 문영애 작가님과 유양희 작가님의 글이 실렸고 3월엔 김용미 작가의 작품이 실렸고 4월엔 노순이 작가님. 5월엔 이성훈 작가님의 글이 올려졌습니다. 6월엔 김레지나 작가님의 작품이 실렸습니다. 합평 후 수정된 원고는 박진희 회장님께 보내주시거나 직접 정국장님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 문학회 English Writers:



The English Writers Group held its May meeting on Saturday, May 30, from 7:00 to 9:00 pm via Zoom. The gathering focused on revising seven poems, including several selected for publication in *Korean Literature of Washington*, as well as a short story.

The works explored a wide range of themes, including life in the DMV area, the Korean War, funerals, everyday objects, and the loss of loved ones. (xThe meeting was both productive and meaningful, with thoughtful discussions and constructive feedback contributing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our literary works and their preparation for publication.

A poem, “Salt Wind, Blue Silence,” by our member Kwang-Mi Lee, will be recited by a professional theater artist at an event hosted by Rose Theater. The event is scheduled for June 9 (Tuesday, 7:30PM) at the Pavilion at Glen Echo Park. All are welcome to attend and celebrate this special moment!

소설 문학회 **Novelists:**

소설은 글을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매월 모임이 없습니다.

신문에 소개된 문인회원 소식

- [영덩이가 무거워야 한다](#) 2026-05-12 이영목 작가
- [맥 카페 단골](#) 2026-05-20 이성훈 작가

- ['America 250 디카시 공모전' 실비아 패튼·이광미·박미혜씨 워싱턴 디카시인 3인](#)
입상 2026-05-14 이광미 작가
- [불친절한 시](#) 2026-05-22 이재훈 작가
- [『울음터 하나』를 읽고](#) 2026-05-29 노세웅 작가
- [가족 나들이](#) 2026-05-29 유설자 작가
- [젊음의 소리](#) 2026-06-02 김 레지나 작가

워싱턴 문인회 YouTube 채널

[워싱턴 문인회 유튜브 채널](#)

- Spring Picnic KLSW (황보 한 작가): <https://youtu.be/qfmlvsmzmyE>

5월 회비납부 안내 및 월 재무 보고

워싱턴 문인회는 버지니아주 정부에 등재된 비영리 단체로서, 찬조 및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락이나 착오가 발견된 경우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비납부 안내: +

Pay to Order: **K.L.S.W.** 또는 **The Korean Literary Society of Washington**

보내실 주소: **Soon Yi**

14308 Marian Dr., Rockville, MD 20850

이메일 문의: soonyi5732@gmail.com

<노트> 재무 유양희 한국 방문 기간((5/27/2026 - 7/29/2026) 동안 노순이 총무님 주소로 보내주세요.

- 연회비나 당일 회비(식사비)를 내실 때는 현금이나 체크를 편지 봉투에 넣으신 다음에 꼭 본인 이름(한글 이름과 영어 이름), 현금이면 현금이라고 쓰시고, 체크는 금액과 체크 번호를 써서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총 수입: \$360.00 (5/25/2026 현재)**

[상세내역]

- * 연회비 납부자 3명 총액: **\$360**(\$120X3) (노세웅, 윤석호, 홍원애)

***5월 총 지출: \$2,028.62**

[상세 내역]

- * 강수영 교수 디카 에세이 강의료 \$200
- * 야유회 경비 총액: \$1,803.62(장소 Carderock Park 사용료: \$350), 배 숙(마이크 + 행사용 선물: \$167.56), 박진희 (Supply: \$27.54), 이성훈(커피, 글: \$49.93), 최은숙(도시락 50개, 행사용 선물, 노트, 볼펜 등: \$1208.59)
- * 문인회 VA-SCC 비영리단체 연 등록비: \$25

***5월 총 잔액: -\$1,668.62(=\$360-\$2,028.62)**

*4월 이월액 \$9,858.66-\$1,668.62(5월 총 잔액) = \$8,190.04

- * 은행 잔고: CD 1 #6353: \$16,556.57 (항아리 기금)
 CD 2#2418 : \$16,510.90 (문인회비)
 Savings #3527: \$5.00
 Checking # 6936: \$13,735.33

2026년 Calendar & Upcoming Events

1/18	신년 하례 및 신임회장단 취임식 고문단 /이사회 대표선출	7월	여름 휴가
2월	각 문학회별 작품 합평 모임 시향 원고제출 안내	8월	각 문학회별 작품 합평 모임
3월	1. 워싱턴문학 WEB사이트에 내 작품 올리기 2. 각문학회별 작품합평모임	9월	1.가을문학기행 2.신인문학상광고 3.마감일자:10/31

4월	각 문학회별 작품 합평 모임	10월	열린낭송의 밤
5/31	워싱턴 문학 작품제출 마감	11월	문인회 총회
6월	시향 출판기념회	12월	워싱턴 문학 출판기념회 신인문학상 시상 및 송년파티

워싱턴문인회 2025-2026 임원단

회장: 최은숙

부회장: 서운석, 배숙

수필문학회장: 박진희

시 문학회장: 윤석호

소설 문학회장: 박숙자

영 문학회장: 서나영

총무: 노순이

미술 & 사진: 황보 한

편집장: 서나영

재무: 유양희

서기: 석민진

웹사이트 관리: 정혜선

유튜브 채널 관리: 김은국

감사: 오요한